축협과 유대강화 맺어 군납까지 시행

취재 : 김 용 화 기자

▲안내를 맡은 이종빈 운영위원(오른쪽), 김경수 총무(中),

육계산업 관련자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지역 축협과 협조하여 산업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포천지역은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양계산물 소비도 전체 생산량의 70%가 축협을 통한 군납으로 회원해당 지역에서 소비가 고정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면에서 다소는 안정을 찾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납품이 큰 비중 차지해

현재 포천군 지역관내의 육계 생산 수수는 월 40~50만수(피크때)까지로 매우 생산규모가 큰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생산자수도 많은 것이 당연하다. 이곳도 생산자들의 모임이 많았던 것은 예외는 아니어서 단합이 원활치는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1974년 채란과 육계분야가 양동환(육계)씨를 주축으로 본회에 분회로서 가입을 하게 되었다.

초창기에는 회원이 50여명에 이를 만큼 조직이 커졌으나 그후 각 단체가 난립하여 5~6명으로까지 위축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1979년 2월에 현재까지 분회장을 맡고 있는 원승재사장을 구심점으로 하여 다시 분회정상화에 전력하여 총 회원이 23명에 이르게 되었다.

포천분회가 타지역 분회와 특이한 점은 육계업을 주로하면서 부화, 약품, 사료, 도계업까지 겸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 충돌 없이 운영을 매우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회원간에는 상호 신뢰가 단합의 원천이 된다. 모두가 봉사한다는 마음이 있을 때 단체의 발전은 이룩된다.

육계산업 관련분야 모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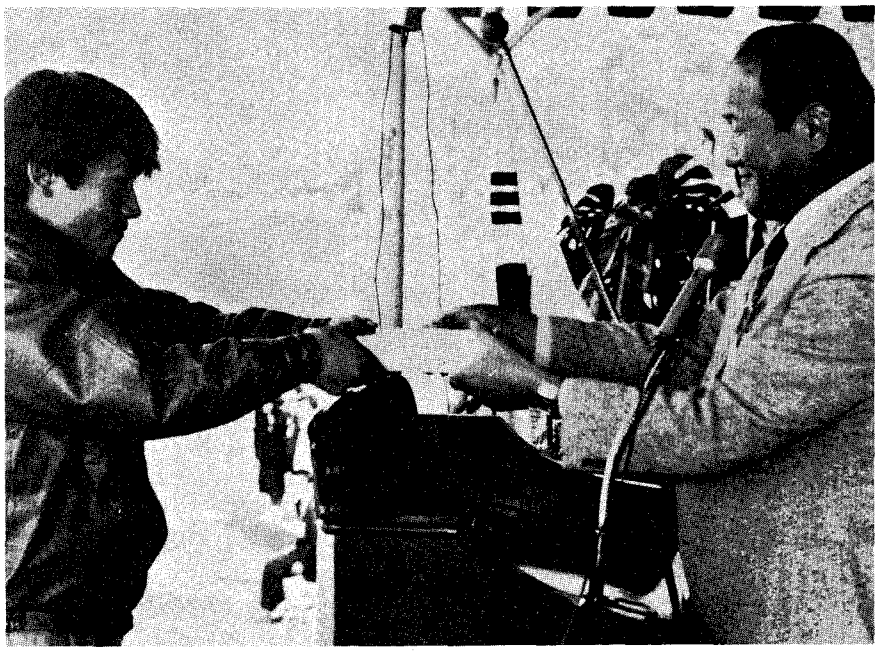
여기에는 남다른 노력이 있었기에 되었음을 이종빈(육계업 · 포천부화장)씨가 자세히 설명을 하여 알게 되었다. "원승재 분회장님은 아버지와 같이, 부분회장인 임성진씨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바탕으로 그야말로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솔찍한 업무처리가 오늘의 포천분회 운영에 밑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역 축협과 긴밀히 유대

그리고 이곳이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이 또 있다면 축산업협동조합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점이다. 대개가 서로 유대강화를 맺지 못하여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불만이 많은데 포천분회는 현재 분회 사무실을 축협건물내에 두고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다. 대신 전 회원들이 축협조합원이 되어 있기도 하다. 서로가 주고받는다는 차원에서 생각하여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호얻는 이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생활안정으로 분회도 안정

군납만 하더라도 일단 납품권을 축협이 받아 조합원에게 배당을 하고 있는데 분회회원들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납품배당을 얻게 된다. 포천분회회원들은 대개 7천~2만수 규모로 뭉친 생산자인데 납품물량이 1인당 도계품으로 1회 12,000kg인데 년 4회를 실시한



원승재 분회장이 포천실고 졸업식때 포천양계협회 대표로 시상하는 장면.

다. 회원들이 지식수준이 높아 마찰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게 자체의 평가이다.

87년 장기 불황에도 큰 어려움 없었다.

분회운영이 잘되다보니 87년 장기불황에도 비교적 바람을 타지않았다. 서로가 형제처럼 믿는 가운데 회원들이 부화장은 물론 도계장까지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입식조절이 경기에 따라 무리함 없이 이루어진다.

실제 포천부화장(사장: 이종빈)의 경우 병아리값이 450선을 홋가할 때도 400원을 넘지 않게 회원들에게 공급을 했던 것이다. 가끔 무슨 모임에 자주다니며 불황이 올것이니 입추를 자제하라고 홍보를 하고 자기는 눈치보며 왕창 입추를 시키는 약삭빠른 사람들이 있어 비난을 사다보면 모임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 해체가 되는데 이곳은 서로가 살아보자는 생각때문에 모인 회원들이기에 불신임은 없다.

자조자립협동 정신 강해

취재에 응해준 이사장의 말대로 "인간이 있는 곳에 닭이 있다"가 전 회원들의 좌우명인 만큼 수입개방에도 누구의 도움을 바랄것 없이 스스로 뭉쳐서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또한 그들의 지론이다. 장래산업발전을 위해 포천분회가 실시하고 있는 포천실고 축산과 졸업생중 졸업식날 전달하는 포천양계협회 회장상은 이미 유명해질만큼 대외활동에도 열중하고 있다.

지난번 수재시에도 전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수재의연금을 거출하였고, 홍보사업에도 참여도가 높다.

특히 이지역은 수도권 상수도 보호지역에서 벗어나 다소는 자유롭게 농장경영을 할 수가 있는 유리한 점도 있고, 군납이 대량시행될 경우 조직력이 우세한 생산자들이 보다 급속히 산업화를 추진하며 발전해나갈 수 있는 곳이다. 지금도 많은 생산자들이 협회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회원 영입에 주력해 나간다는 것이 금년의 계획이다.

"인간이 있는 곳에 닭이 있다"는 좌우명을 바탕으로 전 회원들이 함께 살아가는 체제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운영한다.

양구계

포천분회 회원 명단('88)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고 문	김영일	33-0355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운산리 9
〃	배완근	33-7616	〃 〃 신북면 가채리 815
〃	박기복	2-2668	〃 〃 포천읍 산읍리 48-3
회 장	원승재	32-6938	〃 〃 신북면 만세교리 46
부 회 장	임성진	2-2891	〃 〃 포천읍 어룡리 35
운영위원	양기원	32-6528	〃 〃 영중면 금주1리 728
〃	조대현	2-2890	〃 〃 포천읍 산읍리 127
〃	이종빈	2-2448	〃 〃 군내면 하성북리
〃	안영덕	32-2232	〃 〃 가산면 금현리 178
총 무	김경수		
회 원	이한칠	2-5550	〃 〃 군내면 명산리 222
〃	최종식	33-6476	〃 〃 신북면 고일2리 53
〃	김원태	2-2995	〃 〃 포천읍 산읍리 23
〃	김홍태	2-5245	〃 〃 군내면 하성북리 80
〃	최영갑	33-2020	〃 〃 신북면 가채리 662
〃	이동만	2-3348	〃 〃 신북면 가채리 217
〃	박재경	32-2425	〃 〃 가산면 금현리 538
〃	김영복	2-3502	〃 〃 군내면 하성북리
〃	이종원	2-5429	〃 〃 군내면 상성북리 80
〃	유창만	2-2295	〃 〃 포천읍 어룡리 467-3
〃	방영식	32-5529	〃 〃 영북면 아미리 302
〃	문방식	32-0449	〃 〃 소흘면 이동교리 692
〃	홍진수	32-9047	〃 〃 신북면 만세교리 278